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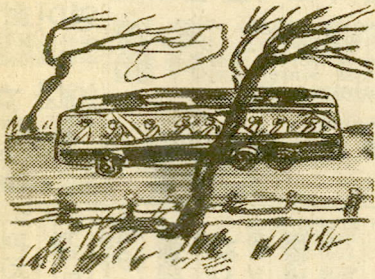
생활속에서

『엄마도 아파』
날씨가 포근해지는데 커튼이랑 이불
빨래를 하고 냅더니 잠기에 걸렸다.
코를 훌쩍 재채기에 으름이 아파 이불
을 쓰고 누워있으려니 발매가 하는말이다.
『아니 엄마는 아픈면 안되지』
대꾸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쾅돈다.
그말이 왜이리 서운하고도 패심하지...

제엄마는 철인 로봇이줄 아나보다.
남편의 반응도 마찬가지다.

『아무리 그래』
자기 아플때 내가 얼마나 정신을여 간
호하고 마음아파 했는데, 막상 내가 아프
다고하니까 약한줄지 사다주는 것도 아니
고 답답하면 사먹으라는투다.
그리고는 신문이나 봤지 살뜰한 정이

엄마는 아프면 안되지?



〈그림·이영중〉

만진 눈길 한번 안돌다. 그래도 아플면서
만은 엄마 아프다고 어깨 주물러 주고 식

사준비한다고 떠들썩하니 대견하고 이쁘
다. 학교에서 돌아오보면 엄마는 늘 집에
있어야 하고, 마누라는 아프면 안되고...
애들이나 남편은 나를 이런정도로 생각하
는 것일까. 가족들의 반응에서 심이년째
의 결혼생활을 되돌아본다. 어머니로서,
아내로서 내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 있는
적은 정말 손님을 전도의 며칠이다.

이제 나도 내자리를 떠나 며칠쯤 친구
도 만나고 서둘러 온느 불을 맞이위해 부
사될 다녀와야겠다. 재충전의 기회를 가
져 봐야겠다. 가족들에게는 제자리에 불박
이 장인양 있던 엄마를, 마누라를 다시 생
각해볼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. 그리고
나도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느낄수 있는
시간을 가져 봐야겠다. 그래야 나도 꼭 있
어야 할 우리 가족의 구성원임을 느낄수 있
지 않을까.

김명희(京畿道水原市長安구 華西2동우
랍아파트 E동 404호) >